

전남도,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이변 대비 안전 강화

인명·재산 피해 제로 목표 1천930억 들어 128지구 위험요소 점검

전라남도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1천930억 원을 들여 128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에 나선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7지구(602억 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16지구(843억 원) ▲급경사지 정비 40지구(34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5지구(141억 원), 4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한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54개 지구로 자연재해 취약지역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함평 염다천, 함평천, 영암 개신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구는 전남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상시 지도·점검 활동도 펼친다.

이와 함께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신규로 4지구가 확대돼 인명피해 우려 3대 분야인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중심으로 피해 저감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비사업의 공사 품질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에도 집중기로 했다. 월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운영해 사업 지연과 예산 이

월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 재

해예방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북구, '광주 최초'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구독 비용 지원... 최대 5만원

챗GPT·한컴오피스·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6종 구입 및 구독료 연 1회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또는 구독 비용을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자 광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북구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280명의 청년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 소프트웨어를 선정했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챗GPT PLUS ▲한컴오피스(한컴독스 포함) ▲MS오피스 ▲어도비 ▲망고보드 ▲

미리캔버스 등 6종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일 또는 구독 종료 기간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가 기업, 교육기관 또는 비즈니스용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이달부터 매월 말까지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청년의 주소, 구입 영수증, 본인 명의 계정 확인 등 지원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청년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푹푹푹 '우리동네 맥가이버' 뜬다

관내 17개동 손재주꾼 34명 기술자 양성

광주 남구 관내에서 손재주가 뛰어난 주민들이 취약계층 이웃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내에 새롭게 꾸린 '우리동네 맥가이버' 봉사단에 대거 합류했다.

오는 11월까지 다방면의 기술을 습득하는 양성 교육을 받은 뒤 동네 맥가이버로 본격적인 활약을 펼칠 계획이다.

18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우리동네 맥가이버 양성 교육이 지난 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동네에서 손재간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관내 17개동 주민 34명이 양성 교육에 함께한다.

이들은 양성 교육을 통해 각종 공구 사용법을 비롯해 방충망 시공, 스프링클러·LED 형광등 교체, 수압 조절기 수리, 안전 손잡이·문고리·가스 타이머 설치, 문 자물쇠·초인종 수리 방법 등을 익힐 예정이다.

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현장

에서 실습 시간도 갖는다.

구청에서 동네별 맥가이버를 양성하는 이유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내에 기술력을 갖춘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구는 교육 참가자들이 숙련 과정을 거쳐 맥가이버로 거듭나면 동네별로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자도 크게 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맥가이버로 변신을 준비 중인 주민들은 교육 이수 뒤 관내 17개동에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동네 맥가이버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주민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서구, 사립작은도서관에 1.5억원 쓴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찾아가는 문화 강좌 지원 등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주민 밀착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등 1곳당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강사와 강자를 매칭해 제공하는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서구 관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이며, 오는 23일까지 서구 상록도서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또는 도서관과(062-350-45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구는 마을 속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방학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마을 연계 홍보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도서관과장은 "작은도서관은 생활 속 문화공간이자 주민이 쉽고 배움을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운영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이달 2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접수

동구, 노후 공동주택단지 대상... 1,500만 원 지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25일까지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주도로, 보안등, 담장 유지보수 등 공용 시설 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사업 대상지는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평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연

수 ▲국민주택 규모 비율 ▲세대수 등 정량평가와 ▲건급성 ▲효과성 ▲필요성 등 정성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5일까지 동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동구청 주거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광주 동구 서남로1)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보건환경연구원,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 사용 지하수 조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7곳,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포함) 6곳, 일반음식점 5곳 등 총 20개 지하수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식품용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 중인 지하수를 채수해 검사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요 원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채소나 가열하지 않은 해산물 섭취,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를 거쳐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도일 기자

